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교황께서 남기신 숙제.



주의하십시오.

악마로 하여금 여러분이 부요한 이들을 위한 부요한 교회, 잘 나가는 이들의 교회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아마도 "번영의 신학"을 퍼뜨리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저 그런 별 쓸모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천주교 주교단 연설문 중에서



[제 1독서] 이사22, 19-23

[화답송] 시편138(137), 1과2, 2, 7과8, 3.6과8, 4 (◎8, 4참조)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었드리나이다.◎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독서] 로마11, 33-36

[복음 환호송] 마태16, 18참조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마태16, 13-20

성가	8시 미사	입당 69	봉헌 216 221	성체 497 175	파견 25
	11시 미사	입당 69	봉헌 216 221	성체 497 175	파견 25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21주일(8월 24일)		연중 제22주일(8월 31일)		연중 제23주일(9월 7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조레지나(선덕)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김안토니오(휘)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최베네딕토(환준)	김길베르토(광호)	정프란치스코(일환)	정요한(석준)	이바오로(명국)	구미카엘(창희)
제 2 독서	최베네딕다(수영)	문골롬바(지영)	정글라라(영희)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말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예전 신학생 때 읽은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 소년이 하늘 높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나지막이 떠다니던 구름이 그 연을 에워싸 시야에서 연을 가려버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년에게 손에 그 줄을 쥐고 뭘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연을 날려요.’ 하고 소년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구름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소년에게 ‘얘야, 저 위에 연이라고는 안 보이는데 어쩌서 넌 연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게도 안 보여요. 하지만 저 위에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이따금 줄이 약하게 당겨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느님을 떠올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분명하게 체험도 되지 않지만, 앞의 이야기의 약하게 당겨지는 줄처럼 우리와 연결되어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미세하게나마 늘 나와 함께 연결되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내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야 그분을 찾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이해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하느님을 체험하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체험이 나만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의 체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나의 체험만을 소중하고, 유일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자의 사람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천 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묻습

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살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체험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빙상섭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사무처부처장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영광 그 뒷면에 감춰진 십자가

이제야 조심스레 하는 말이지만, 책이든 방송이든 한때 우리나라를 온통 휩쓸었던 ‘힐링’ (healing) 열풍이 저는 참 불편했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고 통하는 법이니, 비관적인 생각일랑 접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 생각을 하자는 ‘막연한 희망’ (?)을 얘기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탓하는 건 그저 개인능력이 미달되는 루저(낙오자)나 하는 짓이니, 빨리 마음 고쳐먹고 그럴 시간에 자기계발에 전념하든지, 마음 수양을 하라는 충고였습니다.

물론 이런 힐링 담론들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각자 마음먹기에 달린 ‘개인의 탓’ 으로 돌림으로써, ‘사회적 책임’ 에는 눈감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런 위로는 그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설탕물’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십자가’ 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인미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 신랑 신부가 기쁨에 젖어 모든 게 밝고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우리 인생은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분량만큼의 어둠과 고통도 함께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양지가 있으면 그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어둠 속의 그늘이 있고, 오늘처럼 이런 아름다운 꽃이 있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이를 받쳐 주는 어둠의 뿌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얻는 것(得)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맛 뒤에 감춰진 쓴맛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남편과 아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선배 신자들이 후배 교우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이 늘 영광만 있는 ‘꽃방석’ 만은 아니라는 것, 기쁨과 보람 이면에는 십자가의 고통(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함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신앙을 가짐으로써 늘 만사형통에 기쁨의 은총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의 고난과 십자가가 함께 주어지며, 오히려 그런 십자가를 통해 사람이 성숙되고 단단히 영글어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냉큼 베드로가 나서서 모범 답안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지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라는 대답 속에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영광’ 과 같은 밝은 쪽만 생각했지, ‘그리스도라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어야 한다’ 라는 예수님의 미래 운명, 어두움 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 남들이 말해 놓은 정답을 인용하는 대답도, 신학적인 대답도, 추상적인 대답도 안 됩니다.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 인지 대답해 주세요.

이명찬 신부
서울 대교구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말씀의 향기

나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복음서의 어머니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특히 좋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던 그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참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굳게 믿은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가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즉위하실 때’라는 조건이 어머니다운 속물성이라서 좋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다 속물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의 진심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를 내었다지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를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만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는 있어도, 내 좌 우편 자리는 하느님만이 정합니다.”고 하시고는 “높아지려는 자는 섬기는 자, 곧 낮은 자가 되라.”고 하셨지요.

바로 이런 일이 있고서야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 수난을 받으실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성모님을 모시라는 주님의 유언을 받아 모셨고, 요한복음서와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쓰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 또한 초기교회가 핍박받을 적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배대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천박함과 야비함도 무릅쓰입니다.

얼마나 낮부끄러운 요청이었고, 얼마나 망설였으랴마는, 어머니이기에 가능한 강정이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이지만 확고한 믿음이었고, 속물적이지만 세상 엄마들의 속물성을 잘 대변했기에 참 모성이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백작부인처럼 교양 있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처신한다면, 이웃집 아주머니지 친어머니라 하겠습니까. 다중적 위선인격을 벗어버린 진면모일 때 어머니다운 참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자식은 어머니의 몰상식, 몰인격에서 오히려 성스러운 사랑을 느끼며, 인생의 위기마다 꺼내어 되새기며, 어머니가 소망했던 자

식이 되자고 개심하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말갈 데 소갈 데를 가리지 않는’ 이가 어머니뿐인 줄을 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이미 영광 받으신 하느님의 모후로서보다는, 다만 사람의 아들의 어머니로서 겪으신 극한의 고통에 기대어 더 호소하게 됩니다.

성모님으로 하여 믿음과 기도의 진정성이 증대됨을 느낍니다. 김춘추 시인은 「聖 오마니」라는 시집을 낸 바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성이라는 무조건적 종교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룩한 낭비자이며 무한 희망의 원천이어서 모든 어머니는 성모입니다.

우리 건국신화에서 고구려시조 고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곡모신이었고,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사소녀와, 백제시조 온조 비류형제의 어머니 소서노는 서술성모와 정경모주라는 성모로 추앙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문화적 배경으로 두 어머니에게 더 감동 되는가 봅니다.

유안진 글라라 시인, 서울대명예교수

가톨릭전례

주님의 기도-일곱가지 청원

주님의 기도는 일곱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세 가지 청원은 하느님을 향한 간구로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나머지 네 가지 청원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로서,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하느님의 은총에 내맡기도록 해 줍니다.

1)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느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청원은 하느님께서 거룩해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기를 청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인들을 배척하고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함의 다른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과 일치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3-48).”

2)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 나라는 강생하신 ‘말씀’ 을 통해서 다가왔으며, 복음 전체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써 도래하였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현실화되었고, 세상 끝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느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세상의 나라에도 속해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께 대한 자녀다운 신뢰와 형제들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지만, 세상의 나라는 인간 자신에 대한 오만과 그로 말미암은 이기심, 탐욕, 폭력으로 얼룩진 나라입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과 욕망과 효율만을 앞세우며 돌진하는 신자유주의의 세상 앞에서 하느님 나라는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정신이 계속 교회에 스며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일지라도, 힘차게 자라나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협력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청원하는 것입니다.

3)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1티모 #2:4) 것입니다.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 우리는 이런 관대한 계획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2823항).-

하느님의 뜻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가정의 평화만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의 뜻” 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 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8월24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본당 ME 가족
	연	이카타리나(영순)	가족
	연	이카타리나(영순)	김유릿다
	연	이카타리나(영순)	임루시아
	연	이베네딕토	이유스티나
	연	김마리아(은희)	자녀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8월26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카타리나(영순)	육아오스딩
8월28일 목	연	이마리아(정재)	가족
	연	이카타리나(영순)	육아오스딩
8월30일 토	생	전어거스틴/황모니카	전안드레아/데레사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8	217	-	295
헌금	\$504	\$1,193	-	\$1,697

< 교무금 > \$1,875

이영기(7-8) 서춘애(8) 정일양(8) 이영길(7-8)
배점마(7-8) 유한섭(4-9) 정창희(8) 유인웅(1-8)
황국명(5-8)

< 성소후원금 > \$110

서춘애(9-10) 정창희(8)

< Bishop's Appeal > \$170

지영남(1-12) 이규주(1-12)

< 감사헌금 > -

~~~~ 오늘 간식은 최윤기 유스티노/정일양 안드레아 가정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9월 7일 교중미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사봉헌을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 사무실

◆ 2차 헌금 안내  
9월 7일 : Diocesan Priest Retirement

◆ 약정하신 2014년 Bishops Appeal 을 8월말까지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구역장회의 : 8월 2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레지오 야유회 : 8월 24일(오늘) 교중미사 후  
Robert Pool, Robert Recreation Area
  - \* 프란치스코모임 : 8월 24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북가주 가톨릭 성서모임 창세기그룹 봉사자교육  
일시 : 8/24일(일), 9/7일(일), 9/14일(일), 9/21일(일)  
오후 2시 - 5시  
장소 :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센터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참가비 : 5불(교재비)  
신청 마감 : 8월 17일  
신청 및 문의 : 육승주 아오스딩 510-909-6626

◆ 빈첸시오 홀리스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8월 28일(목) 오후 4시  
\* 봉사해 주실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싸인업  
양식에 기재해 주십시오.

◆ 방효익 신부님 여름 특강  
일시 : 8월 31일(주일) 오후 1시 - 3시 15분  
주제 : 공동체와 신앙생활  
준비물 : 성경  
문의사항 : 영성부장 707-696-7743  
\* 참가비는 무료이며 당일 점심이 제공됩니다.

| 8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11-12장        |
|---------|--------------|---------------------|
| 5 구역    | 8월24일(일) 10시 | Lake Chabot, Willow |
| 6 구역    | 9월 6일(토) 1시  | Tillman Park        |

◆ 북가주 성령대회 강의 CD 및 책 예약 판매  
접수 : 친교실  
강의 CD : \$10(CD 3장)  
책 : ‘천금 말씨’ 와 ‘따봉 프란치스코, 교황의 10가지’  
(차동엽 지음) 각 \$20  
\* 수익금 전액은 본당 발전을 위하여 쓰입니다.

◆ 주일학교 등록 안내  
개강 : 8월 31일  
등록비 : 1인 \$30, 2인 \$50  
접수 : 친교실

◆ 성물방 봉사자를 구합니다.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Hair Cut 봉사자께서 Donation 받으신 \$100 을  
트라이밸리 성전 기금마련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바르톨로메오(8/24) : -
- \* 파트리샤(8/25) : 영명련
- \* 모니카(8/27) : 명만희, 이가은
- \* 아우구스티노(8/28) : 육승주, 송이웅

| 안국학교 소식                        |
|--------------------------------|
| - 개강 : 9월 6일                   |
| - 등록비 : \$300/1년(교재, 행사참가비 포함) |